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호

이 특별한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 마리아 천주자비
예언자에게 2012년 2월 20일에 347번
메시지를 통해서 주신 선물임. 이 인호를
받아들이는 모든 이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너희와 너희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일어나 나의 인호, 즉 살아 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받아라. 내 인호를 제대로 인식하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 십자군 기도(33)를
바쳐라.

오, 저의 하느님, 사랑하을 아버지, 저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반사옵니다. 하느님의 신성이
저의 몸과 영혼을 영원히 감싸나이다. 사랑하을
아버지이신 당신께 겸손히 감사드리며, 엎드려 경배하고
깊은 사랑과 충성을 바치나이다. 이 특별한 인호로써
저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며, 저는 제 생명을 다 바쳐 영원히 하느님을 섬길
것을 서약하나이다. 저는 인자하신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는 자애로우신 아버지께
위로를 드리나이다.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과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저는 아버지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아버지께
바쳐드리나이다. 아멘.

내 자녀들아, 두려워 말고 가거라. 각 개인을 사랑으로
창조한 너희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나에게 의탁하라.
나는 각각의 영혼을 알고 있으며, 너희들을 퀘뚫어 보고
있다. 너희 중 어떤 자라도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부탁하건데,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계속해서 매일
바쳐라. 이 정화가 왜 필요한지 언제가는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하는 천상 아버지
지존하신 하느님